담양 친환경 쌀, 광주 학교급식에 연간 219톤 공급

담양군농협쌀조공법인, 광주교육청 친환경 식재료 공급 협력업체 선정

봉산면 신학리에 120억 투입해 미곡종합처리장 준공 계획…경쟁력 탄탄

대숲맑은 담양 친환경 쌀이 올해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광주광역시 학교 밥상에 오른다.

담양군에 따르면 최근 광주광역시 교육청 친환경 우수 식재료 공급 협력업체 선정위원회에서 서류심사, 현장심사, 밥맛품평회 등 엄격한 심사를 통해 담양군농협쌀조공법인(담양군농협통합RPC)이 학교급식용 친환경 쌀 공급업체로 선정돼 광주지역 초중고 312개 학교에 연간 219톤의 쌀을 공급하게 됐다.

대숲맑은 담양 친환경 쌀은 2011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연간 600여 톤의 쌀을 서울시 학교급식으로 공급했으며, 광주광역시에는 2016년부터 꾸준히 공급하며 친환경 쌀의 맛을 인정받고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

이번 선정으로 연간 800여 톤의 친환경 쌀을 서울과 광주에 공급, 담양 친환경 쌀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친환경농업의 중심지로서의 청정 담양군을 다시 한 번 알리는 계기가 됐다.

특히 올해는 더욱 안전하고 품질 좋은 쌀을 생산하고자 관내 8개 농협을 통합, 담양군농협쌀조공법인을 설립하고 봉산면 신학리에 12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통합 미곡종합처리장(RPC)의 준공을 계획하고 있어 앞으로 담양 쌀의 경쟁력이 더욱 탄탄해질 전망이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전국 최초로 정원과 체험을 겸비하는 미곡종합처리장(RPC) 조성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생산시설 현대화를 통한 고품질의 쌀 가공판매로 전국 최고 브랜드의 자부심을 이어가겠다"며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농업인들의 소득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담양=박종영 기자

장성군 농특산물, '국민안내양TV'에 나온다

사과·감 등 주요 농산물 소개… '남도장터' 통해 설맞이 할인 판매도

장성군에서 재배된 우수 농특산물이 유튜브 채널 '국민안내양TV'에 소개된다. 영상 촬영은 편백숲으로 유명한 축령산의 백련동 '편백농원'에서 진행됐다.

가장 먼저 주목받은 품목은 장성의 대표 과일인 '사과'다. 장성 고유의 사과 브랜드 '장성 엔 사과'는 장성군농협연합사업단에서 엄격한 선별을 거쳐 공동출하되고 있다. GAP인증을 받았으며, 당도가 높고 칼슘이 풍부한 것이 특징이다.

'감'도 빼놓을 수 없는 특산품이다. 맑고 깨끗한 환경에서 재배·건조 과정을 거친 장성 감은 쫄깃한 식감과 깊은 단맛을 자랑한다. 장성군은 지역 특화품목 기업화의 일환으로 '장성 감 주식회사'를 설립, 품질을 높이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밖에도 전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장성딸기와 최적화된 특허시설에서 재배된 새싹삼, 백련동 편백농원에서 만든 편백나무 가공품 등 다양한 제품들이 '국민안내양TV'를 통해 선보여진다.

한편, 채널에 소개된 농산물들은 전라남도 농수축산물 종합쇼핑몰 '남도장터'를 통해 판매된다. 20%에서 최대 70%까지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어, 알뜰한 명절 준비에 추천할 만하다.

장성군 관계자는 "국민안내양TV와 남도장터를 통해 장성의 우수 농특산물이 보다 많은 소비자를 만나게 됐다"면서 "안정적인 농가 소득 창출과 판로 확보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해당 영상은 유튜브 '국민안내양TV' 채널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며, 언제든지 감상 가능하다.

기동취재본부

구례군, 농업용 유용미생물 농가 연중공급

농업용 유용미생물 6종, 연500톤 생산·공급 예정

구례군은 2021년도에도 농업용 유용미생물을 연중 배양·생산하여, 관내 농가에 공급한다.

공급 미생물은 EM, 고초균, 유산균, 효모균, 광합성균 5종과 BM활성수로 총 6종이며, 연 500톤 가량 공급할 방침이며 2020년도에는 관내 3,600농가에 총 460톤의 미생물을 공급하였다.

주민등록상 구례군에 주소를 둔 군민과 농업인에게 무상공급을 원칙으로 하며, 매주 목요일 9시부터 16시 사이에 직접 본인이 용방면에 위치한 유용미생물배양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수령 할 수 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최근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 증가와 환경보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농업영 유용미생물 활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농업인이 적극 활용하여 농가소득 증진에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농업용 미생물은 작물의 생육증진, 면역증강, 병해충예방, 토양개량 및 환경개선을 위해 사용되며 공급받는 즉시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할 경우는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구례=박진호 기자

강인규 나주시장, 설 앞두고 군·경·소방대원 격려

소방서·경찰서·육·공군 부대 방문, 명절 위문품 전달

강인규 나주시장은 3일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관내 군·경·소방대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명절맞이 군부대 위문은 사시사철 향토방위와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 주는 군·경·소방대원을 격려하기 위해 매년 설, 추석 명절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강 시장은 이날 나주소방서, 경찰서, 육군 제8332부대, 공군 제8362부대와 6855부대를 각각 방문해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지만 시민들의 안전과 질서유지, 각종 재난·사고예방을 위해 고생하는 군·경장병과 소방대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명절 위문품을 전달했다.

기동취재본부

구례군, 문화재안전경비원 추가 채용

중요목조문화재 재난예방·사고발생 시 초동대처 업무수행

구례군이 문화재안전경비원 2명을 추가로 채용한다.

문화재안전경비원은 문화재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국보·보물로 지정된 목조문화재의 재난예방을 위해 현장에 상근하며 순찰 및 문화재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한다.

전국적으로 580여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구례군 내에는 10명(화엄사 6명, 천은사 4명)이 국보 제12호 '구례 화엄사 각황전', 보물 제299호 '구례 화엄사 대웅전', 보물 제2024호 '구례 천은사 극락보전' 일원에 배치되어 문화재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번 추가 채용될 2명은 3월부터 천은사에 배치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구례군청 홈페이지 내 채용공고란에서 확인가능하고, 응시원서는 5일과 8일 이틀 동안 구례군청 문화관광실 문화재팀에서 접수한다. 1차 서류전형과 2차 실기(소방기기 운영능력 등)·면접을 진행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근로기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이다.

주민등록상 구례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이면 응시가능하며, 소방안전관리자 2급 이상의 안전 관련 자격증 소지자에게는 서류전형 가산점을 부여한다. 채용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청 문화관광실 문화재팀(061-780-2432)에 문의하면 된다.

구례=박진호 기자

화순군, 초당옥수수 재배 단지 조성한다

오늘까지 사업 참여 접수

화순군은 1읍면 1특화 작목 육성 사업으로 하나로 춘양면에 초당옥수수 재배 단지를 조성했다.

화순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해부터 1읍면 1특화 작목 육성 사업을 추진해 지역 특성에 적합한 소득 작목 육성을 지원하고 있다.

화순읍·도암면은 포도, 한천면은 마늘, 춘양면은 초당옥수수, 이양·청풍면은 참깨, 도곡면은 애플수박, 능주면은 천도복숭아, 이서면은 참두릅, 백아·동복면은 살구, 사평면은 단호박, 동면은 토종다래를 육성하고 있다.

초당옥수수는 옥수수 집중 출하로 가격이 하락할 때 틈새 작목으로 출하해 소득을 올리기 위해 도입했다. 올해 춘양면 3ha에 초당옥수수 재배 단지를 조성한다.

초당옥수수는 아삭아삭한 식감과 높은 당도로 젊은 층에 인기가 많고 생으로 먹을 수 있고 전자레인지에 약간 익혀 먹어도 된다. 수요가 늘면서 최근 초당옥수수 재배면적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초당옥수수의 재배 관리, 비싼 종자 가격, 판로 확보에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화순군 농업기술센터는 재배기술과 농자재를 지원하고 능주농협과 유통업체와의 계약 재배를 통해 안정적 판로와 소득 확보 방안 마련할 예정이다.

초당옥수수 사업 신청은 2월 5일까지다. 초당옥수수 계약 재배를 희망하는 춘양면 농가라면 화순군 농업기술센터에 사업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화순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초당옥수수는 상품성에 따라 소득 편차가 심한 작목으로 고품질로 생산될 수 있도록 올해도 생육 단계별 기술 지원을 추진해 화순군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순=박순철 기자